

한변, 창립 3주년 기념식 개최

- 시변과의 통합취지 선언 -

1. 지난 2013. 9. 10. 출범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북한인권개선 및 자유통일 기반조성 활동에 매진해 온 <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(‘한변’)>은 2016. 9. 8.(목)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관 1층 대회의실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.
2. 특히 이번 3주년 기념식에서는 현재의 국내외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롭고 강력한 변호사 단체의 출현이 절실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2005. 1. 25. 창립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토대를 둔 공동체의 시민적 가치 질서 실현에 앞장서 온 <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(‘시변’)>과 통합을 선언하였습니다.
3. 한편, 이날 행사에서는 홍용표 통일부장관,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, 홍일표 국회의원,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차례로 축사를 하였고, 그동안 북한인권법 통과와 한변의 활동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올인통(올바른인권통일을위한시민모임)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. 이밖에 이용우 전 대법관, 이인호 KBS 이사장, 천기홍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(전 변협 회장),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, 오세빈 전 서울고등법원장,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,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, 이은경 여성변호사회 회장 등 귀빈들이 한변의 창립 3주년과 시변과의 통합

을 축하해주셨습니다.

4. 기념식 이후 특별강연에서는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‘한국사회와 방어적 민주주의’를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고 열띤 질의와 답변이 오갔습니다.

2016년 9월 9일

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(한변)

상임대표 김 태 훈